Global Strategy

대만 증시, 무역 협상 타결과 반도체 호황에 신고가 돌파

EM Strategist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Global & AM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15일 대만–미국 무역 협상 타결, 반도체 업황 호조에 가권 지수 신고가 경신
- 높은 대미 수출 비중과 반도체 중심 산업 구조로 직접적 수혜 기대
- AI 산업 전환 속 구조적 성장 지속, 조정 시 비중 확대 필요

대만 가권 지수, 무역 협상 타결과 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사상 최고치 돌파

- 대만 가권 지수는 연초 이후 +8.4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9일, 31,639.29pt). 1) 15일 대만–미국 무역 협정 타결, 2)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대만 통계청: '25.3월 3.1%, → 8월 4.45% → 11월 5.45% → '26.1월 7.37%), 3)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가 증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25.9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1,000억 대만달러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책을 발표하며 구조적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대만 무역 협상 타결, 반도체 업황 호조 속 실질적 수혜로 연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5일 미국–대만 무역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했으며, 대만은 1) 2,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 2) 2,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만 기업 신용 보증 등을 약속했다.
-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은 이번 협상이 일방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해 1) 건설 진행 중에는 생산능력의 2.5배, 2) 완공 이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수입 물량 관세를 면제하고, 3) 초과 물량은 우대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만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2024년 기준 729.5억달러로 6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25.11월 기준 대미 수출액은 284.5억 달러(39.0%)로 아세안(18.6%)과 중국본토(17.1%)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전자부품·정보통신기술 제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만큼, 대만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구조적 성장에 주목, 조정 국면 진입 시 비중 확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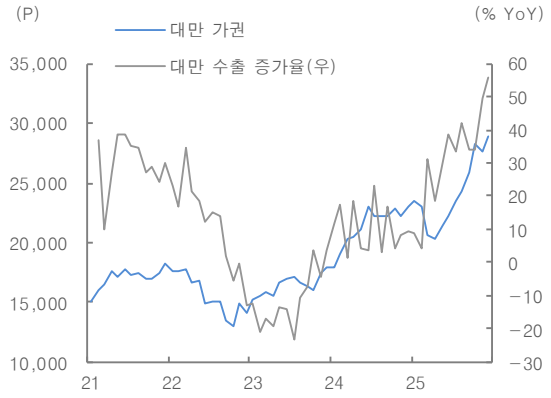
- 대만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과정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 대만 재무부에 따르면 '25년 대만 수출액은 6,407.5억 달러로 +34.9%(YoY 이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5.11월 기준 전자제품(+47.9%)과 정보통신기술 제품(+69.4%) 품목 수출액의 가파른 증가세에 기인했다. 또한 '25.9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 국가 간 산업 시스템 구축, 2) 국제 시장 진출 지원 및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3) AI 전문가 양성 등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만 가권 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18.2배로 최근 5년 평균 15.1배를 상회하여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 전환에 따른 구조적 성장성, 신흥국 중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글로벌 반도체 핵심 공급망으로 떠오르는 대만 증시는 조정 국면 진입 시 비중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

*[대만 ETF] 미국(EWT): iShares MSCI Taiwan ETF

그림 1. 대만 가권 지수와 대만달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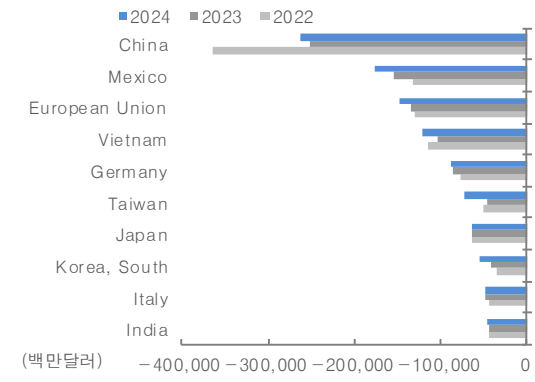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대만 가권 지수와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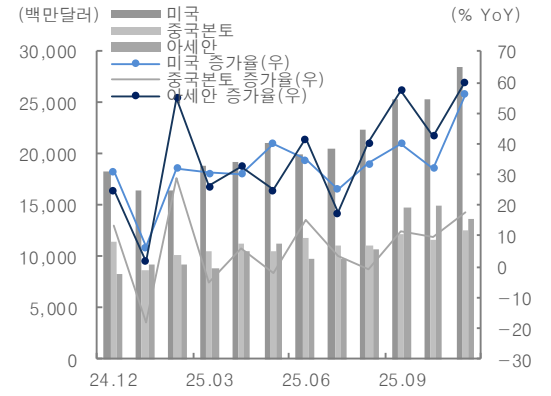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2024년 미국 무역 적자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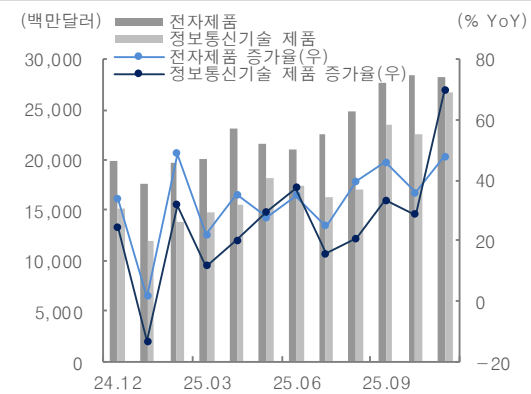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대만 권역별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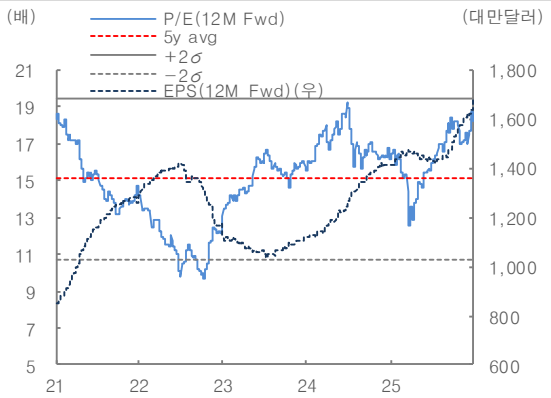
자료: 대만 경제부(MO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대만 상품별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대만 경제부(MO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대만 가권 지수 12개월 선행 PE, EPS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글로벌전략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